

남을까, 보트를 준비할까

- 송인수 교사 / 2003.07.01-

요즘,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공교육을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로 생각해서, 이 침몰하는 선박에서 자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교육이민'이나 '조기유학'이다, '대안학교' 같은 구명보트를 띄우느라 분주합니다. 저와 절친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좀 살만한 집 치고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조기 유학을 생각하지 않는 집이 없다, 아내와 자식을 떠나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대회 때 한 강사는 지금 공교육에 자녀를 맡기는 국민들은 '유학을 보낼 엄두가 안 나는 서민'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양심적인 시민'이든 둘 중 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나친 단순화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한 진실을 품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사들이 보더라도 우리의 교육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좀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가능케 하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90% 이상의 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를 작은 희망을 찾아 몸부림쳐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몸부림, 이 위기의 한국 공교육 속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다른 모든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가 좋은 담임, 좋은 교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그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정열을 다 바치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 아이를 차별대우하지 않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성심성의껏 임하는 교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이요 기대일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옛날 10여전 전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그런 지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철학을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사상적 긴장과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들은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우리 자녀를 전교조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교조 선생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지로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정의로우며, 야영과 캠프를 떠나고 학급문집을 만들고 아이들의 마음 속 우상으로 자리 잡는 그분들의 열심히 교직 생활하는 모습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들의 그런 교사에 대한 바램을 채워줄 교사들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기독교사대회를 통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3000여 기독교사들은 무너지는 이 시대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교사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정방문을 가고 수업평가를 받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쉽지 않은 일들에 기독교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들의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절망에 대답하고, 교직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여러 교육 현안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교직사회에 평화를 심는 일을 기독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계가 어렵더라도, 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자녀만을 생각해서 살 길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서 이 아이만이라도 책임을 지라는 뜻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녀를 성의껏 지도하되, 전체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공교육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라서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구명보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다가올 위기에 두려움을 미리 염려하여 도망가지 말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배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기 이전에,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기독교인인 것을 잊지 맙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최후에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의 교육과 아이들의 장래,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며, 주께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억나시면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장의 기독교사들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기억해 주십시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